韓 수출로 벌고, 日 투자로 번다… 경상흑자 방정식 이원화

韓, 8월 상품수지 468억 弗 흑자
총 461억 弗 경상흑자 기록
9월 경상흑자 615억 弗 역대최대
日, 본원소득수지 5조 엔 흑자 기반
전체 경상수지 4조 엔 흑자 기록



상품수출이 경상흑자를 이끄는 한국과 해외투자소득으로 상품·서비스 적자를 메우는 일본의 경제구조. /Chat GPT 생성 이미지

한국이 상품수출로 사상 최대 경상흑자를 낸 가운데 일본은 해외에 축적한 자산에서 얻는 소득으로 상품·서비스 적자를 메우고 있다. 다만 해외투자소득에는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현지 유보이익도 포함돼, 소득흑자가 늘어도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는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 韓 상품흑자, 日은 해외소득이 버팀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의 9월 경상수지는 614억6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627억5000만달러로 전체 흑자를 이끌었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지난 5일 설명회에서 "9월 상품수지가 견조한 상품 수출에 분기 말 효과가 더해지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모두 발표한 8월 국제수지로 비교하면 흑자를 만드는 원천의 차이가 드러난다. 한국은 상품수지에서 468억1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461억1000만달러의 경상흑자를 기록했다. 투자소득과 급료·임금을 합한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9억2000만달러였다.

반면 일본은 상품수지에서 6877억엔 적자를 냈고 서비스수지도 적자였다. 그러나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이 주축인 본원소득수지에서 5조1332억엔 흑자를 거두면서 전체 경상수지는 4조62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흑자가 중심인 한국과 달리,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강연에서 "해외투자에서 얻는 순소득이 일본 경상흑자의 주된 원천이 됐다"고 진단했다.

◆ 해외투자가 낳은 이익

우에다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과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짚었다.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우선하면서 국내투자가 장기간 위축됐고, 재무구조 개선이 진전된 뒤에도 기업저축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직접투자로 향했다. 우에다는 2012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증권투자를 넘어 일본 자본유출의 주된 통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설립하거나 인수한 자회사 등이 이익을 내면서 투자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이 일본의 경상흑자를 떠받치게 된 것이다.

다만 해외자회사가 번 이익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에다는 해외자회사 이익의 상당 부분이 현지에 유보·재투자되면서 일본의 본원소득 흑자를 늘리고, 동시에 해외직접투자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투자소득에 배당금뿐 아니라 모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현지 유보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배당하지 않고 남긴 이익은 소득으로 계상되는 동시에 금융계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자산의 증가로 기록된다. 이러한 '재투자수익'은 실제 송금이 없어도 투자소득에 잡힌다.

◆ 한국은 배당 환류 확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소득을 볼 때는 현지에 남기는 몫이 줄고 배당하는 몫이 커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신상호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과 이주현 조사역이 지난 6월 발표한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소득수입 중 재투자수익의 비중은 2010~2022년 평균 48.4%에서 2024~2025년 평균 약 25%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2023년 세제조치 이후 해외자회사 배당의 국내 환류가 확대된 결과로 설명했다.

해외자산 축적은 미래 투자소득을 늘리고 대외지급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다만 그 소득이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는 배당과 현지 유보, 실제 송금·환전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 해외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는 외화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 자산에서 얻은 배당·이자를 국내에 들여와 원화로 바꾸면 외화 공급이 늘 수 있다. 현지 유보이익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배당 비중이 높아졌더라도 그 금액이 모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됐다는 뜻은 아니다.

신 과장과 이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투자소득이 실제 국내 외환공급으로 얼마나 환류되는지를 중심으로 외환수급 점검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2금융권, 4%대 예금금리로 자금이탈 방어

저축은행, 예금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 상품 125개 40% 차지
신협, 총 131개 상품 금리 4% 이상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4%대 고금리 예금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자 제2금융권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연말 만기 적금 시기까지 도래하면서 예금 금리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 상품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25개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 중 금리가 연 4%인 상품은 45개, 4%를 초과하는 상품은 80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은 최근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연 4%를 초과하는 예금 상품은 지난 7월 1일 107개에서 8월 1일 33개로 급감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는 각각 5개까지 줄었다. 그러다 이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한 달 새 16배나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87%다. 전월(3.77%)과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3.7%대에 머물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달 중순 3.8%대로 올라선 이후 현재까지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인 신협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연 최대 4% 이상 예금 상품은 이날 기준 총 131개다. 최고 4.30%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동암신용협동조합의 한아름정기예탁, 효천신용협동조합의 유니온정기예탁 상품이 대표적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금 확대에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행렬이 자리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달아 올리면서 저축은행과 신협 등에서도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금융권이 시중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을 막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 예·적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는 점도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기 2~3개월 전부터 자금 확보에 나선다. 연말과 연초 만기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현재 선제적으로 수신 자금을 늘릴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예금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연 4% 이상 정기예금 상품은 31개 수준에 그쳤다.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가 0%로 설정되면서 대출을 통한 자금 운용이 제한된 데다, 건전성 관리 부담까지 겹쳐 적극적인 수신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자금을 무리하게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전성 문제로 대손비용이 생겨서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출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신을 늘리면 이 역시 비용이다"라며 "금고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도 방향을 무리한 수신은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리은행 '대한천일은행' 역사 재조명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학술대회

우리은행이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되짚고 근대 금융 환경 속에서의 역할을 조명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대한천일은행의 민족자본 형성과 회계장부의 학술 가치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되짚고, 근대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이 수행한 역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은 지난 1899년 대한제국 시기 상인과 관료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민족자본 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은행이 소장한 대한천일은행 사료를 바탕으로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은행사 편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근대사·경제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학술적 해석으로 금융사 연구의 깊이를 더한다는 취지에서다.



'송도사개치부법'으로 작성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 /우리은행

지난 6일 열린 학술대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1부 '근대 민족 경제 형성과 대한천일은행의 설립' ▲제2부 '대한천일은행의 민족자본 형성' ▲제3부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의 역사적 의의' 등 3개 주제로 총 8편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개성상인들이 사용한 우리 고유의 복식 부기 방식인 '송도사개치부법'으로 작성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의 사료적 가치가 집중 조명됐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융위, 25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최

서울 양재 aT센터서 3일간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미래 금융산업의 전망을 논의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이 오는 25일부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며, '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Beyond Finance, Into the Future)'를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총 36개 세부 프로그램과 115개 전시 부스에 140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전시관은 ▲핀테크관(72개 부스) ▲금융관(8개 부스) ▲글로벌관(23개 부스) ▲협력관(12개 부스)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금융관에는 6개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iM)와 IBK기업은행, 삼성카드가 참여해 AI 기반 금융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관에는 미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국가별 핀테크 기술을 비교 및 전시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입장·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KB리브모바일, 부산 청년 소상공인 지원

매장 18곳 성정 키오스크 설치

KB국민은행은 알뜰폰 브랜드 'KB리브모바일(KB LiivM)'이 동반성장위원회,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2차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차 지원에 이어 청년 소상공인의 스마트 매장 구축을 지원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B리브모바일은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 1억원을 기부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지역 청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18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키오스크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매장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설치 전 컨설팅부터 초기 설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상미 기자 smahn1@